



자동스크린대국전인쇄기 이충희 대표

이지앤비 I&B

면지 절감시킨 '이지바인딩' 기술 개발

책이 쉽게 펼쳐지는 PUR과 광개본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표지에 부착되는 면지의 구조를 개선한 제책기술을 개발한 업체가 있다. '이지바인딩'이라는 기술을 선보인 무선제책 전문업체 이지앤비(대표 이충희)가 그곳이다.

유연성과 접착력 강화된 '이지글루' 사용

이지앤비의 이지바인딩 기술은 면지에 책의 내용물인 책장을 부착시킴으로써 광개도와 디자인을 살리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지앤비 이충희 대표는 "이지바인딩의 목적은 책을 쉽게 펼쳐볼 수 있게 하는데 있는 만큼 그 기본원리는 PUR 및 광개본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면서 "책 표지에 부착되는 면지의 구조를 개선하여 기존 PUR 제책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제조단가를 낮춘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지바인딩은 면지와 내용물인 책장을 부착시킴으로써 책을 펼쳤을 때에 면지와 책표지의 중앙부 사이에 형성된 공간부에 의해 면지가 들춰지면서 책장이 벌어져 임의로 넘겨지지 않는다. 또한 면지를 2장씩 사용하던 기존 제책방식과는 달리 면지 사용량을 1장으로 줄였다. 여기에 접착제 역시 기존의 핫멜트에 유연성과 접착력을 강화시킨 '이지글루'를 사용하고 있다. 이 대표는 "면지가 보통 장당 30원 가량임을 고려할 때 단가압력을 많이 받는 인쇄·제책 업계의 운영에 많

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크린인쇄 적용한 특수 표지 제작 공략

경기도 일산 장항동에 위치한 이지앤비는 지난 5월 설립됐다. 상호인 이지앤비는 이성과 지혜를 아우른다는 뜻의 '이지(理智)'와 쉽다는 의미의 '이지(EASY)'를 동시에 담고 있으며 여기에 제책을 뜻하는 바인딩(BINDING)의 첫 글자를 결합시켰다. 한 마디로 읽기 쉽고 편한 제책기술을 지향한다는 뜻이다.

회사를 설립한 이충희 대표는 인쇄출판전문 기업인 (주)현문에서 관리상무로 재직해 왔다. 주목할 부분은 현재 이지앤비가 갖추고 있는 이지바인딩기계는 그가 직접 고안한 것으로 자체 제작됐다는 점. 현재 이지바인딩기와 함께 자동스크린 대국전인쇄기를 갖추고 있는 이지앤비는 앞으로 스크린기법을 적용한 표지디자인 및 인쇄 등 특수표지 인쇄 분야를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갈 계획이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